

사순 제2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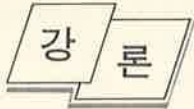
제 1독서 : 장세 12, 1-4a

제 2독서 : 2티모 1, 8b-10

복 음 : 마태 17, 1-9

순정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 17.5).



예수님의 화려한 변신



전대복 신부 / 송천 천주교회

어떤 때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시어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예수님.

또 어떤 때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으로 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또 어떤 때는 가장 불쌍한 처지의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주시는 예수님. 또 어떤 때는 눈을 부릅뜨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큰 고향소리로 호령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을 지키신 예수님.

또 어떤 때는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예루살렘이 당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을 때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으시고 연민을 보여주신 예수님.

또 어떤 때는 죽은 소녀 아이로의 딸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자로를 살리시어 슬퍼하는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실 만큼 아픔을 함께하시는 예수님.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세리와 죄녀에게까지 거리낌없이 대해주시고 어울리신 예수님.

또 어떤 때는 인간의 언어와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은 조용하시면서도 용기있는 분으로, 힘없으신 것처럼 보이시면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현실을 중요시하시면서도 내세를 보여주신 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화려한 변신이 그 자체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이다.

오늘 복음의 거룩한 변모도 이제 곧 있을 당신의 수난을 염두에 두시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아직 신앙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참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느낄 수 없었으며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확신을 갖지도 않았다.

그런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의 당신 모습을 앞당겨 보여 주심은 얼마나 극진한 자상함인가.

철저하게 남을 위해 변신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처럼 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대해주는 변신을 할 수 있을지?

「 예수님의
화려한 변신의 의미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였다 」



성요셉 성월

모모일(즈가리아)

3월은 소생의 계절이면서 희망의 계절이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리나라의 봄, 그 따뜻한 기운을 타고 산천의 만물이 소생을 한다.

기온이 영상 5도에 이르면 수목들의 심호흡이 시작된다. 수액이 오르고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영상 6도의 날씨가 계속되면 갯벌의 가지에 새싹이 트기 시작한다.

이처럼 봄을 먼저 알려주는 것은 캘린더가 아니라 매화, 개나리 등 자연 속의 꽃들이다.

개나리가 꽃을 피고 버드나무에 물기가 차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봄이 오는 것이다.

어느 새 꽃철을 맞았는가 하면 한반도의 색깔을 바꿔 놓는다.

우리는 겨울 동안 퐁퐁 얼어붙은 땅을 보면 다시는 싹이 돌아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면 움이 틀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바람에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땅 속에서 뛰쳐나오고 여기저기서 꽃망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우리를 탄복케 하는 신비로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봄을 식물의 행사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생물들이 겨울을 자랑스럽게 이기고 나서 다시 약동을 시작하듯이 새로운 이상과 희망을 찾아야 한다.

봄을 자연만의 계절이 아니라 인간의 계절로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봄 속에는 터질듯 부풀 희망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리움이 출렁인다.

보리피리 만들어 불며 들판을 누볐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다. 무우꽃 장다리꽃 어우러진 창공에서 요란스레 우짚던 종달새 소리가 듣고 싶다.

3월은 성요셉을 특별히 공경하는 성월이다.

노동자의 모범이시고 가난한 이의 벗이신 성요셉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의 위로자이시다.

성요셉은 나자렛의 겸손한 목수로서 모든 노동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신을 형성해간다. 그래서 노동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도리어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성요셉은 숨은 노동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였고 끊임없는 창조활동에 자신을 투신시킨 성인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기도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은총을 빌어주시실 것이다.

성요셉의 덕을 함께 기리는 3월 한 달 동안 우리 노동자를 위해 그분의 전구하심을 빌자.

사순절은 빠스카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행위를 통해서 빠스카의 신비를 체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엄격히 단식하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극기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봉사하는 생활 안에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용돈을 아끼고 남자는 담배와 술 등을 절약하며 여자는 화장품 값을 절약해 그리스도 안에 한형제인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부활의 영광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증대되는 사막화로 곤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국제 기구와 사회 단체들을 적극 후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사순절 담화문을 발표했다.

숲정이 산책



사 순 절

노동자와의 만남

송년홍(다두) / 광주가톨릭대학

지난 겨울방학의 현장 생활 체험을 통해서 나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30분까지 일하고 또 밤에는 야근을 하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새로운 관심과 느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짧은 체험을 하고 마치 그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은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전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많이 들어왔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진짜 삶으로 느껴보았고 여러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과 나의 삶을,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여러 충고의 말들이 전에는 모르거나 잊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금 생각케 해주었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때는 일하는 기계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지금까지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특별히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노동을 하셨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창조행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노동자이다. 심지어 노동은 하느님의 벌이다(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느님의 벌)고 하는 말 등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의 짧은 체험과 그들과의 만남에서 새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질문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왜냐면 짧은 기간 동안 느낀 노동은 고통이었다. 아직 그것들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많이 남은 나의 삶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충실히 준비해야겠다.

신자들의 소리

근로자는 '우리'

유혜숙(헬레나) / 효자우전 성당

작년에는 중소기업인들로서는 특히 가슴 아픈 한해였던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주님의 공동 분배의 정신으로 저하력 근로자와 함께한 중소기업을 25년 동안 성실히 이끌어온 주식회사 신흥콘크리트 대표이사 이교성(요셉) 씨의 장인(匠人)정신과 근로자와의 인화(人和)정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제는 2세에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터이지만 그의 시작은 1966년경 부인(김화자·글라라)과 3남매의 모약산 밑 어느 빈 농가집에 몸을 의지하며 이루어졌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68년 1월에 '시멘트 블록'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출발, 당시에는 5명의 종사원과 시멘트 50포와 빌린 도구와 공장부지가 전 재산이었다. 새벽 4시에 출발 밤 12시가 되어야 방에 들어올 수 있었던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때 5명의 종사원들과의 따뜻한 점심시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당시에는 외딴곳이었던 부인 글라라 씨의 내조는 눈물겨웠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요셉 씨가 가지는 노사 관계의 인화정신을 들어본다. "근로자는 '우리'라는 한울타리 식구로 언제나 따스한 정으로 슬플 때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고 찾아주어 늘 함께한다는 의식 속에 살다보면 근로자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기업은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고객에 봉사하게 되니 그 대가가 서로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그 실례로 건축 경기가 하양 국면에 직면하여 새로운 품목 개발 및 감원 등 더 나아가 한때는 폐업의 위기까지 닥쳐 3개월 전에 예고했을 때 공장 사원들이 울먹이며 임금을 받으므로 인하여 계속해보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 오늘날 전북 시멘트업계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더불어 사원들의 생일에 따뜻한 내의 및 케익 보내기, 매해 겨울 방한복·방한화 지급 및 매 3개월마다 지급되는 보너스, 근로기준법에 관계없이 일몰시간을 기 준한 출퇴근 시행,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특별히 노동조합 설립이 없는 것이 이 회사의 특징이다.

또 "여러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축적하고 앞당기는 것이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일이다."라는 평소의 그의 장인정신은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일본·유럽 등지의 수없는 견학 및 실제로 서독의 최첨단 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이에 비해 흰머리와 주름 많은 그의 얼굴은 바로 그가 가진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끝없는 집념을 드러내어 주는 듯하였다.

특 집

봄의 길목에서

문규현 신부 / 요촌 천주교회

사순절을 맞이하여 삶의 거듭남을 위하여 3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문규현 신부님의 글을 싣는다.

봄, 비록 봄은 인생의 겨울을 강요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봄을 꿈꾸는 일은 얼마나 은밀한 기쁨이었던지... 나는 믿고 또 믿었다. 머지않아 이 땅에 찾아올 봄은 꽃이 피듯 역사가 개화하는 봄일 것이라고, 그리하여 계절의 봄과 역사의 봄이 일치하는 그날 우리도 찬이슬과 돌베개의 밤을 견고 감옥문을 나서게 될 것이라고. 봄을 향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목숨과도 같은 사제복을 벗기우고 푸른 수의를 입고서도 웃으면서 유배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담 안이든 밖이든 많은 사제들과 교우들이 고난으로 나와 일치하고 계시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자유할 수 있었다.

자유, 그것은 어쩌면 사랑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인지도 모른다. 세상을 이겼노라고, 다 이루었노라고 외쳤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자유는 아직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과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술한 망설임과 주저 끝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랑의 결단을 통해 조금씩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분단의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분단은 갈라진 민족이 져야 할 수난의 십자가라 주장하면서도, 나는 아직 그것이 담고 있는 수난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분단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욱씩 앞으로 내딛고 있는 중이라고나 할까? 처음 사제단으로부터 입수경 수산나와 동행하고 보호하라는 권고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마치 하늘의 푸르름이 한꺼번에 태양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아찔함을 느꼈다. 하필이면 왜 나인가? 왜 나는 분단의 아픔



으로부터는 예외가 아니면서 안주의 삶으로부터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2년이 넘게 기다려준 아시아 인성회는 나의 결단을 이해해줄 것인가, 아니 이 모든 것에 앞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망설여지고 피하고 싶었지만, 부르심은 때로는 거역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강제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사제단 모두의 고뇌와 눈물의 결단에 나 자신도 한 사람이 되어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제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우리 모두가 이루고자 했고 지키려 노력했던 하나의 사건도 4년이란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고 하던가? 고난의 피와 땀을 부어 통일의 열매를 맺는 밑알이 되리라 믿었던 그 사건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몹시 두렵기만 하다.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에 이르도록 현재의 사건이라 믿듯이 분단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나는 오늘도 충실할 수 있는가? 3년 6개월 안에 감옥문을 나서면서 내가 진실로 두려웠던 것은 그나마 내가 간혀 있음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도 좋을 과거가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푸른 수의를 벗고 사제복을

최첨단 시설의 1급 정비공장
군산 자동차 공업사
 대표 김 동 석(라우렌시오)
 군산시 소룡동(군산세무서 뒷편)
 ☎ 63-9302~4

소흥영 외과의원
 레이저 치질 수술(무통)
 통증 컴퓨터 치료실
 소 흥 영(요한)
 유 인 경(유리안나)
 시청 앞
 ☎ 85-3668, 85-8120

익스프레스 전주
 포장 이사·일반 이사
 임 영 섭(디모테오)
 ☎ 77-2424
 72-4242

현대 한의원
 한방 물리요법·임상병리검사
 원장 신 용 훈(안드레아)
 전주백화점←→다가교(파란들 2층)
 ☎ (0652)85-6760~1

입고 있으나 마음은 감옥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토록 갈망하던 봄의 길목에서 봄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이 지루한 불감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가? 글썄, 그것은 이런 것이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얼마간은 온전한 자유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석방'된 죄인일 뿐이며, 남국현 신부와 박병준 신부 또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죄인일 뿐이니까. 사제들의 양심은 아직 조롱받고 있고 권력의 범정에서 여전히 단죄받고 있으니까. 통일을 꿈꾸며 분단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던 통일인사들과 장기수들이 아직 갈라진 조국의 창살 아래 신음하고 있으니까. 내가 차가운 겨울 창살 안에서 꿈꾸던 봄, 역사의 봄이 계절의 봄과 일치하는 그런 봄다운 봄은 아니니까 말이다.

일전에 만난 기자 한 사람이 석방된 뒤 빠르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껏 사람 만나는 일도 제한적이고 삼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던 기억이 난다. 사람 만나는 일을 삼가다니?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움츠려들고 소극적이 되어가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가슴이 뜨끔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석방된 자의 도리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질책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만나는 사람마다의 가슴에 깊이 내린 어두운 그늘을 아직은 정면으로 직시하기가 두렵다. 눈동자는 힘을 잃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을 꺼내기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묻고 싶다. 나도 사제인가? 복음의 빛으로 시대의 징표를 밝혀주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제인가? 지금이 과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새시대인지

아닌지, 희망의 시대인지 좌절의 시대인지, 진진인지 후퇴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시대인지 착종의 시대인지, 마치 길 없는 길목에 버려진 아이처럼 엎드려 울고 싶다.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웃을 위해 제 몸을 바치는 삶이 아름답다고 조금의 감정의 유보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착종과 전환의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다가올 시대가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시대인지, 아니면 희철한 무덤의 시대인지 분별해야 한다. 적어도 다가올 시대는 승리한 자가 역사를 자기 멋대로 미화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부도덕한 삼당야합이 구국의 결단으로, 배신과 음해의 정치술수가 과감한 결단과 정치력으로 미화되어서는 안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심판할 것은 과감히 심판해야 한다. 진실이 아닌 어떤 수사적 미화에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참다운 문민정부의 시대는 결코 그럴듯한 언술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줘야 한다. 진정 상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지혜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이루어 놓은 성과를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수많은 굴절들을 통과하며 더욱 넓어진 지혜로 민주주의가 아닌, 자주통일이 아닌 길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창조적인 새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제 백성들에게도 채찍을 들어야 한다. 지배권력의 현혹에 눈이 멀고 눈앞의 이익과 냄새 좋은 고기냄비에 정신이 팔린 백성의 어리석음에 매를 들어야 한다. 섬기되 아부하지 말고, 봉사하되 영합하지 말고...

이 은총의 시기를 걸으며 함께 다니고 싶다.

요심이 (1022) 김병오



여사무원 모집

- 자격 : 고졸 이상, 영세증명서
- 구비서류 : 이력서, 호적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1통
- 제출마감 : 3월 14일
- 연락처 : 251-1911 금암 성당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탄산수

전주·이리·군산·김제·부안지역 배달
전화 : (0652)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권이복
* 수익금은 가톨릭 농민회 생명공동체 운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직원 모집

맹충복(시각장애를 겪은 중북) 장애인 시설 라파엘의 집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보육사(남,녀) ○명
영양사(여) ○명
• 연락처 : (0337)83-663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나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APT특수 보조기 ■APT자동 빨래 건조대 ■인테리어 다목적 선반
■원목·철제가구
성원 인테리어 총판
서원식(야고보)
고선규(미카엘라)
☎ 78-1941, 252-9233

장기·화재·운전자 보험
한국 자동차 보험 Co.
완주 삼례 대리점
대표 김진권(스테파노)
반명선(아녜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0-9
☎ (0652)291-2265

교회 출판물 보급 부녀회원 모집
• 전주, 군산(이리), 남원지역 책임보급자로 모시려 합니다.
• 보혈직, 판매직의 경험자 우대
• 전화번호 명기, 소개서 우송바람
• 문의 : (02) 886-4980
성향석두 루가 서원

뿌리를 찾아서

숲정이 성당

— 순교자적 삶의 열망이 넘치는 곳 —



호남 제1의 성지 '숲정이.' 여섯 분의 성인과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은총과 영광의 땅. 그 성지 자락에 용지를 틈 '숲정이 성당'은 1976년 12월 15일 중앙 본당에서 분가하였다. 1974년 자본당의 분가를 결정한 중앙 본당은 1976년 6월 성당 부지(1,404.95㎡)를 매입하여 8월에 성당 겸 유치원(363.63㎡)의 공사를 시작, 12월에 완공하여 이루갈다와 유효한을 주보로 모셨다. 진북2동, 서신동 전역과 진북1동, 태평동 일부를 관할하면서 본당 설정 당시 210 세대에 611명이었던 신자수가 1987년에는 2,65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교세가 확장되자 성당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1978년 11월 신자들의 성금 4천7백여만원을 모아 이

듬해 9월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공사는 1981년 완료되어 이듬해 8월19일 초대 고 이대권(바오로) 신부의 회갑연을 겸해 축성되었고 주보는 성베드로 정원지로 다시 정하였다.

순수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성가정 공동체이다.

1986년 성당 내외곽 단장 공사를 통해 신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고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화려하지 않으나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으나 소담스런 깨끗한 성당으로 가꾸어 놓았다. 1988년 서신동 성당의 분리로 정들었던 서신동 교우들과 헤어졌으며, 숙원이었던 사제관과

수녀원 마련을 위해 작년에 다시금 성당 옆의 가옥을 매입하여 개·보수함과 아울러 구 사제관을 고쳐 수녀원이 입주하였고 금년 2월에 새로이 단장된 사제관 2층에 처음으로 보좌신부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갖기도 했다. 현재 김동준(야고보) 본당 신부와 김광태(야고보) 보좌신부가 사목 일선에서 열과 성을 쏟고 있는 이곳은 2,500여명의 신자에, 4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특히 나이드신분들이 많아 본당신자들은 생활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효성과 신앙이 남다르다. 또한 성지에 자리잡은 본당은 항구한 신앙의 열정을 지녔던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으며 현대의 순교자적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과 열망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만드는 곳 ~~~~~

## 노동자의 집 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이제 '93년을 맞아 노동자들은 큰 짐을 짊어지고 대장정의 또 다른 길을 떠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가슴 저린 일도 많았고 잊어야 했던 일도 많았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길목에서 지난 10년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여러 동지, 친구들, 선배들과 자리를 하여 '지움과 쌓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올해는 지난 '92년 3월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했던 고 박복실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는 사순시기에 전북지역 10년의 노동사목 활동이 남겨준 교훈을 바탕으로 신앙 안에서 노동자의 인간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의 원인을 함께 찾고 희망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진한 사랑을 느끼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꼭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사목  
전주·이리·군산 노동자의 집

한방 본초 농축 미래 건강식품

### E. EXCEL

대표점 모집(사업에 뜻있으신 분)  
전 광 원(마르크)  
☎ (0652)74-7787

### 삼성콘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기숙사용 주문 제작  
대표 신 득 호  
박 명 자(루시아)

지점 : 덕진구 여의동 1217-10  
본사 : (02) 523-0877~9  
지점 : (0652) 212-4336~7

###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삼 재(베네딕도)  
☎ 75-0550

### 축! 개원 온다라 미술학원

(입시 미술 전문 지도)  
원장 김 준 태(시몬)  
주택은행 옆 천보정 회관 3층  
☎ 231-5285

# 교구 소식

❖ 사제 총회

· 때 : 3월9일(화) 오전10시  
· 곳 : 천호 피정의 집

❖ 재무 평의회

· 때 : 3월12일(금)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축! 견진

· 때 : 3월14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슈루 성당

❖ 교구 법원

· 때 : 3월8일(월) 오후4시  
· 곳 : 교구청

❖ 천호 피점 안내

· 때 : 3월13일-14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주제 : 사랑(하느님, 인간, 가정)  
· 감사 : 범석규 신부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3월14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때 : 3월8일(월) 오후12시30분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3월14일(일) 오전9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 사랑의 다리 웰레미사

· 때 : 3월8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노동자의 집 10주년 기념 행사

· 때 : 3월13일(토) 오후2시  
· 곳 : 이리 신용협동조합 3층  
· 내용 : 10주년 기념행사 및 지역 노동자 축하 행사 ◎고 박복실 추모미사가 3월11일(목) 오후7시 전동 성당에서 있음

❖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제18차 정기 총회  
· 때 : 3월10일(수) 오전10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행복한 가정운동 안내

· 때 : 매일 오전9시-오후5시  
· 곳 : 교구청 별관 4층  
· 내용 : 자연 가족계획 교육, 입양, 미혼노 상담, 청소년 성교육, 혼인강좌 안내  
· 문의 : 85-5098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3월15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샤를르 드 푸코  
· 회비 : 1,000원

● **성소모임**

❖ 성바오로딸수도회

· 때 : 3월7일 오후2시  
· 곳 :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3월14일 오후1시30분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212-3233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3월14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 **시순절에 권해드리는 책** ■

· **쏟아지는 나무**  
루안노체/황애경/1,500원  
교만덩어리인 나무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다는 우화.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비닐 사용을 억제합시다

근래에 들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분리되어 버려지는 쓰레기들, 오염도가 적은 세제를 사용하는 주부들의 착한 마음씨 등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졸업, 입학 시즌을 지내면서 각종 선물, 꽃다발 등에 사용되는 만능 포장지인 비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갖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인쇄된 비닐포장지가 등장하여 장식용으로 단

한 번 사용된 후에 그냥 버려지고 있고, 그외에도 비닐봉투 등 비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용품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은 찢어지거나 조금만 손상이 가도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썩지도 않고 합부로 태울 수도 없는 자연의 파괴자인 셈이다. 가능하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예 대체될 수 있는 다른 것을 사용하여 비닐 사용을 억제함이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 산 농 서 실

고 영 선(마태오)  
송 춘 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 88-5580

양재 · 한복 · 훌패션

##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인드레이)

동부시장앞 · 민정당사앞

☎ 86-2715

93년 비전학 청소년 국비

무료수강생 모집

##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

전 광 원(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서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 할 티 생 수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주단·침구·혼수 전문

## 부 인 주 단

김 한 중(요 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웨딩드레스 전문점

## 신부의 집

전주점 판통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본당신학생을 위하여 많은기도바랍니다. : 김정진(레오) 김정현(비오) 이동열(모세) 2. 가정방문안내: 10일-중노8반, 12일-중노9반. 3. 여성연합회퍼즐: 11일 전9시30분-후4시. 참가비-2,000원. 미사있음. 4. 새벽미사: 9일. 사제총회관제로 어머니미사 없음. 5. 십자가의길 안내: 평일미사 30분전(공동으로) 금요일미사전-사목회에서 주관. 6. 모임: ①부녀회(9일 전10시30분) ②꾸리아(14일 전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차비의 모후-후2시) ③장우회(14일 장엄미사 후) 7. 사랑의 나눔 헌금: 205,000원. 누계-205,000원. 8. 축! 축인: 신랑-이광수(도마) 신부-추덕희. 14일 후12시. 9. 금주청소: 중노11, 12반. 차주청소-중노13, 14반.  
☐ 지난주 봉헌금: 909,710원 ☐ 교무금: 1,46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범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가정방문: 태평동 1반(3월9일 화 오전9시30분) 태평동 2반(3월9일 화 오후2시) 태평동 3반(3월10일 수 오후2시) 태평동 4반(3월12일 금 오후2시) 2. 예비자교리: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수녀님반)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3. 불 관공성사: 평일미사전후. 성사표 사무실에. 4. 회합: ①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구역분과회(9일 오전10시) ④안나회(11일 오전10시) ⑤여성분과회(13일 오전10시) ⑥요셉회(14일 공식미사 후) ⑦꾸리아(14일 오후2시) ⑧청년회(14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해설-유두석.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김종성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조옥배. 독서-김종성씨 부부. 봉헌-김홍현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64,460원 ☐ 교무금: 956,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록

- ※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1. 사순 제2주일 ※ 교무금 봉헌주일 2. 모임: ①동청녀들의 모후 Cu-오늘 공식미사 후. 3. 사순절 가정방문: 10일(수) 오전-어두리. 오후-내어두리. 11일(목) 오전-요동. 오후-원외암리. 12일(금) 오전-신흥리. 4. 교리교사 퇴임 및 임명: ①퇴임-이승자, 문미영, 안형숙 ②임명-남영우, 한지숙, 양미화, 강은경, 김정미. 5. 예비자 입교식: 14일(주일)공식미사 중-한가정, 한분씩 인도. 6. 십자가의 길 기도: 매 미사 30분전. ※ 매주 금요일-금육. 7. 금주의 침소담당: 성실하신 동청녀 Pr. 8. 차주전례: 해설-김영선. 독서-①남현준 ②김미리. 봉헌-김종석씨 부부. 9. 주일미사를 독서지 말고 미사시작 10분 전에 성당에 옵시다.  
☐ 지난주 봉헌금: 385,670원 ☐ 교무금: 14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응

- ※ 사순 제2주일! 겸소한 생활과 사랑을 나눌수있는 뜻깊은 사순절 되기를...**  
1. 회의: ①반장회-오늘(3월7일)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2시 ③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①울뜨레아-3월10일(수) 오후7시30분.  
3. 알림: ①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십자가의 길 있음. 많은참여 바람. ②사무실 전화사와 안내-성당의 공무에는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나 사사로운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람 ③주일학교 개학-3월6일(토) 오후2시30분(학부모님들은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람)  
☐ 지난주 봉헌금: 698,850원 ☐ 교무금: 1,35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사순 제2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2. 가정방문: 3월9일-11일(3구역 4구역 계속)  
3. 다음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4. 바이오램프, 카드, 그림, 미수금을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람. 침소 봉사: 4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727,600원 ☐ 교무금: 76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범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골목반 의방선교회 도신부님 특별강론(전9시, 10시30분미사) ②제육극라라형제회(후1시30분) ③주일학교 개학(금주부터 후1시30분 교리) 2. 사타회: 9일(화) 전10시. 3. 돈보스교회: 10일(수) 후7시30분. 4. 금주 명화상영: 10일(수) 저녁미사 후. 제목: 십계. 5. 유아세례: 13일(토) 후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람. 6. 견진성사 신청자 접수: 20일까지. 7. 십자가의 길: 저녁미사 30분전(6시30분) 8. 성지회 발족(2월26일): 30~50대 남성. 회장: 김수용(베드로) 부회장: 손취부(요셉) 총무: 이대식(다니엘) 회계: 김형태(율리아노) 9. 감사합시다: 중담 12사도문 스탠드 클라스. 봉헌(익명-100원) 10.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2시) ③사목회(후8시)  
☐ 지난주 봉헌금: 1,773,3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상 근

1. 축! 독서직, 시종직 수직: 박동진(시종직) 노해동(독서직) 이영춘(임대) 김 일(임학)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2. 사목회 임원피직: 13일-14일 천호 불참자는 사유를 보고.  
3. 사목회 심의위원회: 11일 저녁8시. 광진6동105호 김무용.  
4. 주교님 방문미사: 10일(수) 저녁7시30분 사순절 특별강론.  
5. 구역미사 임직: 9일-9구역2반 저녁8시. 11일-12구역2반 전10시30분. 8구역3반 후3시. 12일-9구역3반 저녁8시.  
6. 회의: 자모회 10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 12일 후3시.  
7. 중·고생 신입생 및 전입생 환영식: 오늘 학생미사 후.  
8. 탈삼미사: 14일 12시 문정리 베에밀라 자택 연도 합시다.  
9. 교적 가져가고 가져오기: 이거 아래자는 화요일에 확인바람.  
☐ 지난주 봉헌금: 1,154,480원 ☐ 교무금: 2,10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범 기

1. 사목회: 오늘 오후7시.  
2. 반모임: 9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 10일(수)오전-금하. 오후-화산2(A) 비사별. 11일(목)오전-오성은하1. 오후-오성은하2.  
3. 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부활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 오후8시(남성)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여성)  
5. 전례자 교육(모임): 다음주일 미사 후.  
6. 꾸리아: 오늘 미사 후.  
금주전례: 정 결. 독서-봉헌: 이금숙, 박경주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육연숙, 강의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삼 호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십자가의길 매주금요일 9시30분)**  
1. 아이에스 행사: 3월14일(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성당에서 있습니다. 2. 안나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교육관에서.  
3. 성모회: 3월10일(수) 오전11시.  
\* 축하하니다: 여성41차 푸르실료수료자(이정옥 모니카, 장오분 도미니카)  
\* 견진성사: 견진대상자는 12세이상으로 우리본당 신자중 2,500여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견진교리-16,17,18,19,23,24,25,26,27일 오후7시30분부터 교육관에 있습니다. 교리참소는 5일 이상을 꼭 참석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구역장이나 사목실에서 드립니다.  
\* 미사안내: 금주-승경하신. 매피의모후. 차주-신자들. 계오의페. ☐ 지난주 봉헌금: 1,183,240원 ☐ 교무금: 2,578,000원

**\* 효자동**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익 도

1. 모임안내: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반첸시오회-8일(월) 전10시 ③레지오단원 및 신자재교육-8일(월) 저녁7:30 ④구역분과회-11일(목) 10시미사 후 ⑤자모성모성심회-12일(금) 10시 미사 후. 2. 가정방문 및 반미사: 9일(화) 오후2시-청학침술. 10일(수) 오후2시 신봉. 신리. 11일(목) 오후2시-거성남양. 한성. 태하. 12일(금) 오후2시-우진1,2. 3. 미사시간 1경: 8일(월) 새벽6시. 저녁미사 7:30. 4. 예비자교리 학생반: 13일(토) 오후5시. 차주모임-울뜨레아. 기우회.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이준영 ②윤귀길. 봉헌안내-김장관-부. 유준구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소철영 ②성보. 봉헌안내-김영철 부부. 박남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95,960원 ☐ 교무금: 5,649,000원